



#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부

## 뉴스초점

###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수립

#### 정책자금 상환 2년 유예

농림부는 농어촌의 부채 증가로 농·어가의 파산으로 인한 농어업 붕괴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농·축협이 자체적으로 대출한 상호금융에 대한 금리를 농업생산 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선별해 정책자금 금리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에 상환해야 할 자금이 해당되는데, 주택 1채 외에 부동산 가액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96년식 이후 2천cc 이상 승용차를 소유한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확정

#### 농림부, 법제처와 협의중

농림부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안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의 의사를 수렴한 뒤 지난 8일 당초안대로 그동안 배합사료에 첨가하여 사용되던 비타민, 아미노산, 효소제, 생균제 등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의해 취급되어 왔던 사료첨가제를 사료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정된 후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첨가제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우선 1단계로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배합사료

업체와 동물약품제조업체가 같이 사료첨가제의 원료수입 및 제조를 할 수 있으며, 2단계인 2001년 1월부터는 항생제 및 항균제를 제외한 품목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모든 사료첨가제의 수입과 판매, 취급이 완전자유화된다.

**중계·채란계 생산성 저조**

**질병과 환우계 증가로 능력저하**

채란계와 육용종계의 생산성이 대부분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의 장마기간이 길어서인지 질병 발생율이 높은 가운데 산란율이 저조하여 병아리와 계란생산량이 잠재력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격이 일정기간 생산비선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년의 경우에는 사양관리가 잘 되는 농가와 나쁜 농가와의 소득 차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고질적인 환우계 증가로 생산성이 더욱 악화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림부 가공업무 일원화로**

**축산국 과별 업무 분장 조정**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에 따라 축산국내 과별 업무를 조정하였다.

생산, 유통단계를 3단계인 가축의 도축·집유 및 처리, 축산물 가공, 축산물의 보관·운반 및 판매로 나누어 축산경영과에서는 집유, 유가공, 우유류 판매로 하였고, 축산물 유통과에서는 알가공, 축산물보관, 축산물운반, 식육판매, 부산물 전문판매, 축산물수입판매,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관장하게 되며, 축산위생과는 법령 및 기준·규격 등의 설정·도축업, 용기 등 제조업, 식육가공업 등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육계 여름철 생산지수**

**연 평균치보다 20% 가량 낮아져**

본회가 검정소에서 행한 제53회('98. 6. 25~8. 12) 경제능력 검정성적을 분석한 결과 고온기인 여름철의 6주말 생산성은 전년 연 평균치와 비교해 볼 때 약 16%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요구율도 0.9%가 증가하여 육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름철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출하체중 급격히 낮아져**

**가미솔치킨 등 특수여파**

금년의 육계출하 경향이 체중이 1.2kg 전후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로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해당업소에서 원재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중량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 유행하는 가미솔치킨 등의 적은 체중 특수여파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육계출하 농가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어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10월호 알가공품 성분규격 내용중 변경과 종전의 규정이 바뀌어 표기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양계**